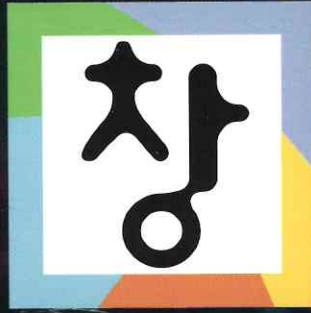


재외동포의



2012 5월호



재외동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되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친숙한 우리민족의 무늬 규방공예 ‘조각보’



물건을 덮거나 싸서 보관하거나 이동하는 데 사용하였던 보자기는 과거 협소한 주거의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적인 도구다. 본래 조각보는 남은 천 조각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생활용구다. 조각보는 단순히 물건을 싸거나 이동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이기도 하고, 예술작품, 공예의 한 장르이자 세계 속의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조각보를 만드는 과정과 그 작업의 내면에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규방공예’ 라는 장르로 분류되어 조각보뿐 아니라, 주머니류, 의복류, 생활소품류, 침선용품류 등 한국 전통 손바느질 공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장 전시 등 세계무대에서 또 다른 한국의 얼굴이 되고 있다.



04



08



15



17



18



24

Contents 2012 5월호

- 02 **한국의 열** 친숙한 우리민족의 무늬 규방공예 '조각보'
- 03 **목차**
- 04 **특집** "전세계 한민족은 하나다" 동포 리더들 '공동체 강화' 논의
제13회 세계한인회장대회 6월26일 열린다
- 08 **포커스** 2013년 세계한상대회 광주광역시 개최
올해 제11차 대회장에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선임
- 10 **글로벌 코리아** "차세대 동포 여러분 난관에 도전하는 글로벌 시티즌 되세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강조
- 12 **화제** "차세대 네트워킹은 미래를 위한 투자"
차세대동포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
- 14 **지구촌 통신원** "LA폭동 20년... 통렬한 자성 필요"
- 15 **한글학교 탐방** 한국뿌리 가르치는 이탈리아 한글학교
- 16 **한상칼럼** 한인 자녀, 모국보다 현지 성공전략 더 중요
김원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
- 17 **동포 이민사** 남미 이민의 선구 '브라질 한인'
- 18 **현장의 목소리** "세계에 한국 문화영토" 광개토 사업 아시나요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대표
- 20 **OKF 뉴스 광장** 재미 동포사회 곳곳에 '재단 사업' 널리 알려 외
- 22 **동포 문학** 자서전을 읽다
임의숙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미국)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한민족 공감** "바다를 향한 우리 민족의 빛..."
여수세계박람회 5월12일 팜파르 '93일간의 판타지'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김용 미 다트머스대학 총장이 세계은행 신임 총재로 임명됐다. 앞서 오바마 미 대통령은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그를 지명하면서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은행에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김 총장의 풍부한 국제적 경험이 세계은행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전세계 한민족은 하나다” 동포 리더들 ‘공동체 강화’ 논의

제13회 세계한인회장대회 6월26일 열린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한인회장들이 머리를 맞댄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서울에서 80여 개국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114개국에 흩어져 있는 700여 개의 한인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재외국민 선거제도, 차세대 교육, 권익신장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동포리더들의 모임 중 가장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대회이다.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통해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및 재외동포사회의 발전 견인을 목표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에는 내·외 동포간 및 한인회장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수 한인회 운영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등을 계기로 세계 각국 한인회장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한인사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올해 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최종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코리아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사업에 대해 한인회장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재외동포 권익신장 및 국가발전 원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예정여서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근 이사장은 “대회를 통해 한인회가 동포사회와 모국을 잊고, 유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은 이미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상생(相生)’의 관계이며, 지금은 이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대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 공동의장인 장홍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한인회장 대회가 고국에서 13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국내에 재외동포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며 “한인사회가 한인회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모국과 한인사회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번 대회에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1 지난해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으로 한인회장들을 초청, 인사를 하고 있다.
- 2 전 세계 한인회장들의 축제 한마당인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예정이다. 사진은 2011년 세계한인회장대회.
- 3 올해 대회는 전 세계 9개 지역별 한인사회 현안토론 시간을 좀 더 배정해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 지난해 대회에 참석한 한인회장들이 건배를 하며 서로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5 재외동포재단은 한인회장들에게 '글로벌코리아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양한 현안 폭넓게 협의

대륙별한인연합회 회장 중심으로 구성된 한인회장대회운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서울에서만 개최하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음으로써 행사의 집중도를 높ی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대회까지는 개최식 및 주요 포럼과 토론을 서울서 열고 지방으로 이동해 지역사회와 한인회간의 교류시간도 가졌다. 한인회장들이 지방을 방문함으로써 해외에 지방의 우수 자원을 소개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서울과 지방을 오가다 보니 행사 집중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운영위원회와 동포재단은 지방으로 이동해서도 한인사회의 현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참석률이 매우 낮았고 토론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서울에서 각 지역 한인사회 현안 발표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회 첫날에는 각 정당별로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포럼을 열어 '재외동포 끌어안기'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을 소개하고 한인회장들과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역별로 모임을 열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열린다.

둘째 날에는 지역별 토론 결과를 가지고 전체회의를 열고 회장들의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장학금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한인회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해 전체 회장에게 알리는 시간을 통해 서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인회장대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토의도 열린다.

이번 대회에 정치권 등 국내외 이목이 쏠리는 것은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동포의 참정권 행사로 인해서다. 2009년 2월 5일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등 재외국민참정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4월 총선에 재외동포가 참여를 했다. 비록 투표율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여야는 전망하고 있다.



한민족 공영을 위한 한민족 공동체 구축 기반 조성과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인회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올해 6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업을 위한 재외동포 네트워킹이 주목을 받으면서 동포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수장들이 모이는 이번 대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엄정 중립'

이번 대회에서 한인회장들은 연말 대선에 한민회가 '엄정중립'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천명할 예정이다. 한인회장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가 동포사회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민회가 나서는 방안과 투표율의 제고를 위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아시아한인회연합회 승은호 회장은 "한민회장을 비롯한 한민회 간부들이 정당 활동을 할 경우 한민회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한민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층 성숙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장홍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오공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 단장, 승은호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정효권 재중한국인회 회장, 김근하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 홍영표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 등 동포사회의 대표적인 리더들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공동의장을 맡은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참정권 행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민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한민회의 정치적 중립을 결의하고 각 정치세력에 한민회를 중립으로 두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개로 분열됐던 유럽 한인단체의 통합을 이끌어 낸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장점으로 "전 세계 한민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과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정부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장**



- 6 올해 대회에서는 지방으로의 이동 없이 서울에서 열려 대회의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 7 한민회장대회에서는 매년 대회에 참석한 한민회장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 8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세계한인'을 추구하고 있다. 사진은 대회 참가자들의 소감을 남긴 방명록 게시판.

2013년 세계한상대회 광주광역시 개최

올해 제11차 대회장에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선임



재외동포재단은 5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0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광주광역시로 선정하였다.

참석자명단 _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문대동 제10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 안영집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강병목 뉴욕한인경제협회장, 방준혁 유럽한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 권병하 세계한인무역협회장, 김창호 청도조선족기업협회장, 승은호 동남아한상연합회 회장, 이영현 영리 트레이딩 회장, 임창빈 창텍스트레이딩 회장, 장석원 Korea IT Network 회장, 조병태 소네트그룹 회장, 주부호 미주뷰티서플라이총연합회장, 허성칠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장, 정원준 중남미한상연합회 부회장, 송창근 동남아한상연합회 부회장, 이봉섭 캐나다한인상공실업인총연합회 부회장,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박현순 중국한국상회 수석부회장, 김영필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 수석부회장, 고해정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수석부회장, 정진철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천용수 세계한인무역협회 명예회장, 최석 동남아한상연합회 부회장, 한창우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명예회장, 김우경 Korea IT Network 고문, 이훈복 중국한국상회 고문,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은 5월 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20차 한상대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광주광역시로 선정하였다.

운영위원 23명은 이날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3개 지자체의 발표를 들은 뒤 투표를 통

해 광주광역시를 차기 세계한상대회 개최지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3차례의 도전 끝에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부산광역시는 과거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는 2차례 한상대회를 개최했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날 광주시 결정과 관련해 “광

주시가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150만 광주시민의 꿈이 이루어졌다. 모든 준비와 정성을 다해 2013년 세계한상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그 동안 서울3회, 부산3회, 제주2회, 인천·경기·대구 각 1회 등 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만 개최됐으나 이번 광주유치로 국제행사의 지역 간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지역이 국제화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함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상대회는 40여 개국 1천500여명의 세계한상을 비롯해 국내외 기업인 3천5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행사로 그동안 국내기업인들이 해외 동포기업인을 통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에 큰 도움을 줬었다.

광주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상대회 개최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는 100억 원대에 이르고, 과거 대회를 기준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천 453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소네트 그룹(SONETTE, INC.) 조병태 회장을 선출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상대회를 오랫동안 참여해온 만큼 금년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대회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

제21차 세계한상대회 리딩CEO포럼

“FTA 잘 활용하면 동포 기업에 도움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제21차 리딩CEO 포럼을 5월 3일 서울 코엑스(COEX) 3층 컨퍼런스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리딩CEO 총 38명 중 19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김원호 원장이 주관한 ‘FTA 체결에 따른 재외동포 경제활동 성과와 활용방안’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고, ‘한상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리딩CEO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기웅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ASEAN, 인도, EU, 페루와 협정을 맺었으며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됐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협상 진행 중인 것을 포함해 FTA 상대국인 69개 나라에 720만 재외 동포의 92%가 거주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수출 및 현지 경제활동에 줄 수 있는 도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정석 외교통상부 FTA정책기획과장은 “FTA로 인해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FTA의 긍정적 효과, 적용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 등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상들이 FTA를 통해 성공한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각 기업체들이 FTA전문가를 많이 양성하여 롤모델을 만들어 주도록 당부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리딩CEO들은 ‘FTA 적극 홍보’와 ‘국내기업과 한상 간 윈-윈’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포럼에 참석한 리딩CEO들은 FTA로 인해서 동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관세혜택 등을 볼수 있는 분야와 품목에 관심을 표명했다. 이영현 캐나다 영리트레이딩회장은 “FTA체결효과가 각 사업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한 정부 및 전문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영인 미국 터보홀딩스 회장은 “뉴욕지역의 한인 경제단체들은 한·미 FTA로 한국과의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늘어나고 한상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FTA와 관련한 포럼이 앞으로도 더 열리기를 희망했다. **장**



1

“차세대 동포 여러분 난관에 도전하는 글로벌 시티즌 되세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 강조

“오늘날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는 경제성장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탄탄한 경제성장에 주력하겠다.”

지난 4월 16일 세계은행의 차기 총재로 선출된 김용 미 다트머스대 총장은 세계은행 총재로서의 비전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 총장 시절부터 학생뿐 아니라 한국의 청년과 동포 차세대에게 ‘난관에 도전하는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상의 고민은 곧 나의 고민임을 알아야 한다는 그는 “세상의 문제는 모두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란 없다”고 말한 슬런디키 다투머스대 전 총장의 말을 인용한다.

김 총재는 또 세상에 대한 지나친 냉소보다는 포용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냉소적인 태도로 포기해버린다면 그건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라 비겁함”이라며 “상황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낙관적으로 전진하는 것이 도덕적인 선택”임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거기에 참여할 방법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한국 학생들에게 적어도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힐 것을 권유했다.

그는 로버트 줄릭 현 총재의 뒤를 이어 오는 7월1일부터 5년간 세계은행 수장 역할을 한다. 세계은행은 직원 9천 명의 거대 국제기구로 작년 기준으로 2천580억 달러를 각국에 지원해주고 있다.

‘경제성장’ 최우선 과제로

김 총장은 “전쟁의 잣데미 속에서 희망이 없던 한국이 지금 이뤄낸 성과를 보라”며 “이러한 경험을 살려 빈곤퇴치와 경제발전에



2

1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일 청와대에서 김용 다펜스대 총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김 후보가 인류학과 의학을 전공하고 개발도상국에서 직접 개발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경험이 있다”면서 “세계은행 수장으로서 최적이다”라고 말했다.

2 차기 세계은행 총재로 임명된 김용 다펜스대학 총장이 제임스 올펜스 전 세계은행 총재를 만나 조언을 듣고 있다.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은행에서 일하려면 비관주의의 같은 것이 용납될 여지가 없어야 한다”라며 전 세계 최빈국들의 경제성장에 대해 낙관적 태도로 참여할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런 자신의 포부가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맥을 같이한다면서 “가난 속에 사는 모든 이들이 ‘신흥 글로벌 중산층’으로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HIV, 결핵, 말라리아 등에 투자한 것도 중요했지만 사람에게 투자한 것이야말로 최근 아프리카의 성장을 견인한 근본요인이라고 믿고 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제발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김 총장은 또 기후변화도 ‘매우 중요한(critically important)’ 문제라며 각국 정부와 직접적인 공조관계에 있는 세계은행의 수장으로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총재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인 후보 편향성 논란에 대해 김 총장은 “나는 미국인으로서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에서 성장한 미국인임은 사실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세계 각지에서 유엔 활동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며 자신의 국제적인 성장·활동 배경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아프리카가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한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향후 도덕적 책임을 논할 자리에 불가능을 말하지 말아 줄 것”을 국제사회에 당부했다.

큰 비전으로 세계 리더 지향

“높은 시험점수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리더가 되겠다는 큰 비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 총장은 국내의 차세대에게 폭넓은 독서와 사고를 통해 큰 비전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 1950년대 세계은행과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면서 “나는 이제 ‘세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 총장의 세계은행 총재 당선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국제 3대 기구 중 2곳의 수장에 한인이 진출한 쾌거다. 유엔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빅3’의 국제기구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200만 명이 넘는 재미동포 사회의 성장은 한민족 해외 진출의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용 총장은 서울서 태어나 5세 때 부모를 따라 아이오와 주에 이민했고, 브라운대학을 나와 하버드대에서 의학박사와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결핵 퇴치와 국제 의료 활동에 앞장섰고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국장,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사회과학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천재들만 받을 수 있다는 ‘맥아더 펠로 장학금’을 한국인으로서 처음 받았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

그는 2009년 하버드 의대 국제보건·사회과학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400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아시아인으로는 처음 다펜스 대학 총장에 선임돼 화제가 됐다.

2006년에는 개발도상국 등의 질병 퇴치를 주도한 공로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히기도 했다. **창**



재외동포재단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20일 외교센터 세미나실에서 '2012 차세대동포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차세대 네트워킹은 미래를 위한 투자”

차세대동포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차세대동포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차세대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차세대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재외동포재단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차세대 네트워킹’을 보다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해 지난 4월 20일 외교센터 세미나실에서 ‘2012 차세대동포네트워크 구축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특성 고려한 세분화 필요

이번 간담회는 동포재단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로 재외동포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 및 한인 차세대 네트워크 실무자 25명을 초청해 이뤄졌다.

간담회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자의 질의응답을 거쳐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방식과 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설 교수는 네트워크의 성격에 따라 효과가 다르며 오픈냐 온라인이냐 또 미시적인가 거시적인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차세대 동포 네트워크는 이주국가와 이주시기, 연령, 이민세대 등 대상 집단별로 다를 형태를 취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어 구사여부와 한국 문화의 노출 정도에 따라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조형재 동포재단 차세대 팀장이 재단의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현황과 주요 사업을 소개했다. 동포재단은 차세대 인재발굴, 네트워크 구축, 인재 육성과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을 통해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오고 있다. 특히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4년째

이어져오면 총 646명의 인재를 발굴한 것은 소중한 인적 DB가 되고 있다.

세계 차세대 한인단체의 운영과 지원방안을 지역별 주요단체 실태 분석을 통해 발표한 전형권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원 박사는 “봉사단체와 학생단체는 미국과 캐나다, 전문가 단체는 영국, 청소년 단체는 미국, 청년단체는 일본, 사회단체는 미국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전 박사는 “차세대의 낮은 조직 참여율과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참여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모국에서 발화된 차세대 네트워크는 현지의 일상적 네트워킹 강화를 바탕으로 점차 세계 각 지역의 지회들과 연결되어 확산됨과 동시에, 그러한 확대된 역량을 바탕으로 다시 모국으로 회귀하는 글로벌 수준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국과 차세대간 상생발전 모색

종합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은 차세대 규정에 대한 학문적인 제안에서부터 동포재단의 차세대 사업의 위치와 한계에 대한 지적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_ 동포차세대를 구분할 때 연령을 45세까지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국과 차세대간의 상생발전’이라고 본다. 모국과 각국 단체들 간의 1:1 관계뿐 아니라 단체 간의 수평적 네트워킹도 늘려야 한다.

이진영 인하대 정외과 교수 _ 차세대네트워크 구축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중장기 계획뿐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목표를 설정했을 경우 자원과 예산 동원이 충분하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사업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임영상 한국외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_ 우리말이 서투른 고려인 차세대의 경우 가지고 현지에서 동포사회 리더그룹과 한국의 전문가 집단이 같이 교류하는 워크숍 형태의 행사가 필요하다. 차세대사업은 현재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에 치중되어 있지만 저변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준태 C3협회 전 이사 _ 차세대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혜택을 갖고 거주국에서 차세대 후배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모국 정부의 차세대 지원이 해외에 활성화된 차세대 단체 위주인데 신

생단체나 일반단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철민 재일코리아변호사협회 변호사 _ 재일동포 사회는 4세, 5세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은 한국어 잘 못하다 보니 뿌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차세대 활동 참여가 어렵다. 잃어버린 한민족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주제 발표〉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전형권
전남대
세계한상문화
연구원 박사

박우 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전 회장 _ 조선족 사회는 유교 원리에 충실하기에 서구적 네트워크 이론을 대입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모국연수나 거주국에서 한민족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심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클 것이다.

예동근 부경대 교수 _ 차세대 대회는 20명 정도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다. 차세대 대회의 해외 개최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대만에서 세계화교차세대대회는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대회가 됐다. 수십 년간의 네트워크 축적의 결과다.

외교부 이원희서기관 _ 외교부에서도 동포 차세대 육성은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구상 하는데 잘 반영시키겠다.

이 밖에도 설동훈 교수는 “차세대에 대한 학문적 개념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형권 박사는 “차세대 사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재단이 갖고 있는 권한과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나 리딩CEO한상을 끌어 들이는 등 협업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학자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차세대 네트워크 중장기 사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간담회를 마치며 “다양한 조언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차세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창**

“LA폭동 20년... 통렬한 자성 필요”

재미 한인사회, 타민족과 융화 노력... ‘정치력 신장’ 과제



LA 흑인폭동이 발생한 지도 벌써 20년. 그 전역지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그 사이 크게 변해 중남미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흑인을 능가하는 주류 인구로 부상했다.

지난 4월 29일은 미국 최악의 인종 폭동으로 꼽히는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이 일어난 지 20년 되는 날이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회장 유진철)는 4월 28일 “재미동포 사회가 민족적 자만에 빠져 타민족을 경시하는 풍조가 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주총연은 ‘로스앤젤레스(LA) 폭동’ 2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렇게 주장한 뒤 “작은 실천을 통해 이웃 타민족들과 아픔을 같이하는 친구가 되고,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연대하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LA폭동은 다민족사회인 미국에서 집단폐쇄성과 배타성을 내세운 게 원인이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노력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통렬하게 자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울러 “지금까지 우리가 신세를 졌던 미국사회에도 이제는 우리가 얻고 누렸던 것을 나누고 되돌려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동포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LA폭동사건은 지난 1992년 4월 29일 흑인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구타한 4명의 백인경찰관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LA흑인들이 반발하며 일주일간 벌인 폭동으로, 옛세 동안 이어진 폭동의 최대 희생자는 한인들이었다.

백인들에게 받는 차별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도 한인들에게

쏟아낸 것이다. 피해 업소 1만여개 가운데 2천800여개가 한인 업소였다. 전체 피해액 7억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억 달러의 피해가 한인 몫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은 폭동의 상처를 찾아볼 수 없다. 폭동의 원인이 됐던 인종간 갈등과 반목도 많이 완화됐다.

폭동의 가해자 격인 흑인과의 접점도 크게 줄었다. 한인이 상대하는 고객도 흑인에서 라티노로 바뀌었다. 한인타운에서 흑인 인구는 이제 5%에 불과하다.

폭동 당시 사우스LA에서 하던 주류 판매점이 몽땅 불에 타는 피해를 봤던 허종(67) 씨는 “흑인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등 오랫동안 유대 관계를 다져왔다”면서 “이제 한인들 수전노로 보는 시각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회(KAC)의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한인이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주류 사회의 존중을 받아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존중받는 길은 정치적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리와 그레이스 유 등 젊은 한인 변호사와 활동가들은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한인 사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권훈 연합뉴스 LA 특파원

한국뿌리 가르치는 伊밀라노 한글학교

특별활동 다양... 한국문화 관심 높이기

“이탈리아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말을 잊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토요일마다 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밀라노 한글학교는 밀라노를 포함한 근교 도시의 한인 2세 학생들과 한이 가정의 2세 자녀를 위한 한글 교육기관입니다”

밀라노한글학교 서유미(49·여) 교장은 “한글에는 우리민족의 정서와 문화가 담겨져 있다”며 “한글학교에서는 정체성을 잃기 쉬운 외국생활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확신시켜주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85년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가 27년째 머물고 있는 서 교장은 1년 간 학부모 대표를 맡은데 이어 3년째 교장 일을 보고 있다.

밀라노 한글학교에는 현재 유치반과 초등학교반, 초등학교어반, 중학생반을 합쳐 13개 반 90명의 학생을 13명의 학부모 교사가 맡아 가르치고 있다. 교사들은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사 연수를 통해 수업계획을 세우고 각반 토론을 통해 학습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학생 중 절반은 상사 주재원 자녀들이고 나머지는 교민 자녀들이다. 초등학교어반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탈리아 아빠들도 와서 배운다.

한글 수업 외에도 특별활동반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것을 접하고 있다. 미술, 태권도, 종이접기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태권도는 특히 인기가 많다.

1984년에 설립된 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현지 학교를 빌려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 및 한국 기업체, 그리고 한인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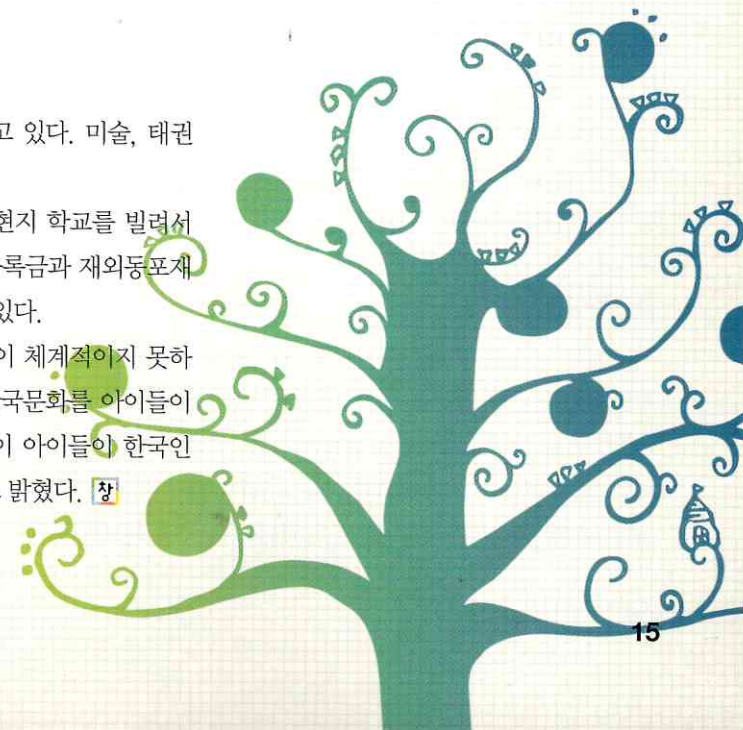
서 교장은 “교사들이 전원 비전공 학부모들로 구성돼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지만 한국 교과서 중심의 수업과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한글과 한국문화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학습하도록 유도한다”며 “교사들은 지금의 수고와 희생이 아이들이 한국인임을 잊지않고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



학생들이 민요, 가요 등 통해 우리말과 음악 실력을 학부모들에게 선보이는 밀라노 한글학교 예술제.



밀라노 한글학교에서는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학기 학부모 참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인 자녀, 모국보다 현지 성공전략 더 중요

필자는 몇 해 전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했다가 우리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부탁받게 되었다.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춰달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부모들이 자식들을 미국이나 한국에 보내 교육시키려하고 있었다.

필자는 “글로벌시대에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능력만 갖추면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인이나 한국계이기 때문

에 더욱 외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한국에 가서 직장을 구하게 하지 말고, 또 반대로 외국에 살 것이니 한국어는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잘못이다”고 했다. 덧붙여 도미니카공화국이 빠른 성장을 하고 있어 가능성이 보이니 자식들을 현지에서 성공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필자의 말을 못미더워하는 눈치였다.

최근 필자는 동포 자녀 특별입학전형 면접을 맡은 적이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재로 자란 한 지원자는 모 대학 의상학과에 합격했으나 한국 수험생들이 디자이너 예비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디자이너 꿈을 접었다고 실토했다. 필자는, 만일 이 학생이 한국에 오지 않고 디자이너 꿈을 계속 키워갔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한국계 위상 역사상 '최고'

위의 두 사례는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에 숙제를 주고 있다. 한국인과 한국계의 위상이 오늘날처럼 높았던 때는 역사상 없었다. 아프리카의 수단보다도 가난했던 국가가 반세기만에 원조공여국으로 둔갑하는 기적을 이뤘던 유일한 나라로 한국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세계 최고의 정치기구인 유엔과, 세계최대의 개발은행인



김 원 호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장

세계은행의 수장이 모두 한국인 또는 한국계가 되었다. 주한 미국 대사도 한국계인 시대가 되었고, 이밖에 많은 국제기구나 세계 도처에 한국인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한국인이든 한국인의 자손이든 이들의 뒤에는 한국의 발전이 있고, 이들의 성공이 곧 한국의 국위선양이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더군다나 이들이 현재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후자는 외국국적 소유자는 외국인으로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는 민족국가(nation-state)가 국제관계의 유일단위체였던 19-20세기에 통용된 관념일 뿐이다. 많은 학자들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네트워크가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중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한 민족네트워크는 매개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차세대 육성에 더 투자해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심화 발전은 우리의 이익에 직결된 문제다. 재외동포가 한국 쪽만을 바라보고 사업을 펼치거나 자녀 교육을 생각하기 보다는, 현지에서 또는 제3국에서 경제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자녀들이 우리나라 학생들과 다른 다양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받고 경쟁력을 쌓도록 키우는 것이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더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재외동포 지원정책은, 동포의 경제 활동 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의 교육과 현지에서의 사회적 성공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1.5세, 2세, 3세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사업과도 연계시켜 추진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이들의 네트워크화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 동포들이 많은 국가에는 차세대들이 중심이 된 직종별 또는 지역별 조직이 있는데 이들 네트워크나, 유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강연 자리에 있던 부모들의 눈빛이 말하듯, 모국은 그들 자녀들이 현지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 현지에서 인맥을 쌓으며 사회적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재외동포재단이 앞으로 국내에서 찾을 수 없는 능력 있고 창의적인 차세대 재외동포를 키워내는 일에 더 투자하기를 기대한다. **장**

남미 이민의 선구 '브라질 한인'

농업이민에서 출발... 주류사회 진출 활발

브라질 최초의 이민자는 1918년 배를 타고 허가 없이 현지에 도착한 박학기 씨다. 이후 1926년 이종창, 장승호, 김수조 씨, 1931년 김영두 씨 등 일가족 6명, 1956년 반공포로 50명 등이 공식 이민 전의 기록이며, 1962년 고평순(94)씨 등 15명이 한백문화사절단으로 갔다가 정착하고, 이어 1963년 농업이민자 103명이 산투스 항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이민사의 첫 페이지다.

브라질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황무지 개간은 경제 개발 중요 관건이었고 1960년대 한국은 산업화가 아직 안 돼 농업 이민에 대한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다.

1960년대 5차례 걸쳐 농업 이민을 온 한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현실에서 한국적 농업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닫고 대부분 도시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현재 브라질 한인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민 1세대들은 대부분 가게, 슈퍼마켓, 의류업 등 자영업, 생산업, 무역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인 2세대들은 적은 숫자지만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등에 전문직 종사자가 늘고 있다. 한인사회는 차세대리더 육성에 적극적인데 중국계 상원 의원 윌리엄 우의 보좌관을 지내고 있는 동포 2세 김범진이나 이윤진과 같은 젊은이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는 좋은 예다.

브라질은 소위 '브릭스'로 불리는 신흥 경제국가로 주목을 받으면서 삼성, LG, 포스코 등 대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다. 덕분에 브라질 사회는 한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을 중계방송을 통해 한국의 역동적 성장에 감탄한 브라질 사회는 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그 자신들이 배워야 할 '모범적인 이민 집단'으로 승격시켰다.

최근 브라질의 시사 잡지 '베자'는 기사에서 "브라질 한인들은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교회면 교회에 무척 열심히며, 브라질 최고 학부 졸업에 최고급 브랜드 의상을 입고, 또한 주말에는 골프를 즐긴다"고 소개하고 있다.

올리베이라 재한 브라질 전 대사는 "브라질 사회가 한국과 재브라질 한인 사회에 주목하는 점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도입과 한국



2010년 5월 21 브라질 상파울루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코리아 타운 지정 기념식이 열렸다. 한인동포들로 구성된 어머니 합창단과 사물놀이패가 출연해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과 전통 가락을 선보였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 밀집지역인 봉헤치로에서 지난해 5월 22일 '제6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한인 서예가들이 브라질 주민들에게 한글로 이름을 써주고 있다.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다.

상파울루 시내에서 동양인이 가장 많이 다닌다는 학교 반데이란치스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교인데, 그 중 15%가 한국인이다.

브라질 한인 사회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단합되어서 외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치안의 경우는 현지 경찰과 한인회가 공조를 잘하고 있다. 최근 한인회는 이민 1세의 고령화로 인해 양로원을 겸한 병원 건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독도수호, 동해 표기 홍보 등 해외에 잘못 알려진 한국 표기와 역사바로잡기에 나서고 있다. 해외에서는 동포 차세대와 유학생 등 한인사회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세계에 한국 문화영토” 광개토 사업 아시나요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대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최근 해외 동포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1세기 광개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개토 대왕이 (재위 391~413년) 고구려의 영토를 아시아에 광대하게 넓혀나가며 한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나간 것처럼, 21세기 해외 동포와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려 한민족의 문화적 경계를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구석구석 확장시켜 나가는 사업입니다.

반크에서 해외 동포와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한국홍보자료를 무료로 지급하며 21세기 광개토 대왕으로 위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나라별로 개별적으로 한국을 홍보하고 있었던 수많은 해외 동포들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유학한 한 학생은 “유학생들 중에 한국에도 차가 있느냐? 높은 빌딩이 있느냐? 어떻게 캐나다까지 공부를 하러 올 수 있느냐?”는 등 외국 학생들이 한국을 아직까지도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 현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면서, 자신은 그때마다 서울시내와 멋진 야경들이 찍힌 엽서를 보여주고, 거리에서 보이는 현대차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한국에서 만든 차라며 주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한국 관련 홍보자료 부족

뉴질랜드의 한인회 부회장으로부터 받음 메일도 잇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뉴질랜드의 어린이들로 부터 날아오는 한국에 관한 질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질문들이라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한 30년 전 새마을 운동할 당시어나 어울릴 것 같은 질문들이라 주위에 한국학생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의아해 했다고 합니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배우는 내용들이 한 30년 전에 제작된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이런 내용들뿐이었다 합니다. 부회장은 아이들이 어려서 배운 한국에 대한 지식이 평생을 갈 것이고, 오랫동안 기억되어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다며, 현지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 달라며 연락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로부터는 현지 한인들의 노력으로

국제학교 안에 한글학교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늘 느끼는 것은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과 시대가 뒤떨어진 것, 특히 영어로 소개할 만한 자료가 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국제학교다 보니 교재를 미국에서 들어와서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 자료가 없다”며 “해외 현지에서 한국의 다음세대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걱정이야”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파견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에게서 받은 메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일본에 와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우리 역사와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땅에 관한 자료가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가 있더라도 주로 영어권 자료라고 합니다. 재일동포 차세대들은 4세, 5세대가 되면서 대부분 한국말을 못하고 일본어가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일본어로 된 우리 문화 등을 보여 주고, 느끼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인데 일단 보여 줄 것이 너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위스 호텔학교에서 공부중인 학생으로부터는 호텔학교 특성상 투어리즘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도서를 도서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책들이 한국관련 자료는 한 페이지 정도뿐이고 거의 없는 실정 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각국 홍보 DVD나 비디오도 있는데, 한국 관련 동영상은 없다고 합니다. 요즘 세계의 젊은 세대는 영상물을 좋아하니 멀티미디어로 된 한국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보내주시면 요긴하게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한 학생은 막상 미국에 와보니 세계인들은 한국에 비해 일본과 중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비록 한국은 모를지언정, 중국과 일본에 관한 지식으로 동아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아시아인으로서 다행이라며 안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 보다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려 한국을 통해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이처럼 21세기 광개토 사업을 통해 흠어진 720만 한인 동포들의 눈으로 바라본 60억 속에 한국을 그려보면, 우선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변화와 변화를 거듭해가는 한국의 모습이 해외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머릿속 한국은 항상 한국의 현재 모습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아프리카에서 한국 알리기에 나섰다. 반크 박기태 단장과 연구원 9명은 지난해 11월 초에 짐바브웨에 머물며 현지 주요 대학과 초·중·고교, 한글학교, 한인회를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홍보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자라나는 외국의 다음세대들은 교과서를 통해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한국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과 그에 비해 외국교과서에 한국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내용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한국에서 배웠던 내용과 해외 현지에서 배운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 그들이 갖고 있던 국가관 역사가 무너져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 도서관 및 학교에 한국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며, 영어이외에도 현지어로 된 한국홍보자료 배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외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로 된 한국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이번 광개토 사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가 광개토 사업을 통해 거두게 된 최대의 수확은 전 세계 한인 동포들과 유학생들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거나 국가 이미지가 저평가 되는 현실에 좌절되거나 무릎 꿇지 않고, 그들 자신이 먼저 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확장시키며 한민족의 지경을 개척해 나가고 확장시키는 21세기 광개토 대왕을 발굴하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과거 광개토 대왕이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세계 속에 한민족 시대를 그려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21세기에는 해외 흠어진 720만 한인동포가 전 세계 60억 인구의 머리와 가슴속에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우뚝 세우고, 한민족의 지경을 세계에 확산시켜나가는 21세기 광개토 대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세계 속에 21세기 한민족의 시대를 열어나갈 21세기 광개토 대왕입니다! **장**

재미 동포사회 곳곳에 ‘재단 사업’ 널리 알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미국 서부지역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5박 7일간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돌아보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인 회장을 비롯한 주요 동포단체, 차세대, 한글학교 관계자, 언론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교육, 차세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재단 사업을 설명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며 “재단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글학교의 발전과 미국교육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주한국학교 관계자는 “한인 차세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한글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해외에서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말과 글, 문화·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단은 한글학교 지원 등을 통한 차세대 교육과 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한인차세대대회 등 차세대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LA와 샌프란시스코 한인사회를 방문해 교육, 차세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재단 사업을 설명하면서 “미주 한인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위상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계한상대회 고문단 초청 간담회에는 강석희 어바인 시장,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 존 서 LA 세계한인무역협회장이 참석해 차세대 육성을 중심으로 한 동포사회의 발전 및 한상대회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밖에도 김 이사장은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한미연합회 LA지부, 한미특수교육센터 등 동포단체를 방문해 각 단체들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장애아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동포들의 권익보호와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재중국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에 주력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중국지역 재외동포 단체와 한글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중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7박 8일간 선양, 하얼빈, 장춘, 연길 등 4개 지역을 돌아보았다.

주요 일정으로는 선양, 하얼빈, 장춘, 연길지역 한인단체장, 조선족기업가협회장, 한글학교 교장, 동포언론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선양조선족연의회 관계자는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주’ 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고, 차세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한글교육에 힘쓰고 있다”며 재단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이사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공생하는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중국지역 재외동포 단체와 한글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중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월 12일부터 7박 8일간 선양, 하얼빈, 장춘, 연길 등 4개 지역을 돌아보았다.

에서도 우리말과 글, 전통문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재단도 동포 차녀들에 대한 한글교육과 한민족 정체성

유지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예산확보 노력 등을 통해 동포단체와 한글학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이사는 하얼빈, 장춘, 연길지역 한인단체, 조선족단체대표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통문화 유지·보존과 차세대육성을 위한 재단사업 추진사항 등을 설명하고, 차세대들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해 재중동포사회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월드옥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세계 61개국 116개 지회에 6천500여명의 정회원과 1만여 명의 차세대 회원을 두고 있는 한인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4월 25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수출상담회를 겸한 제14차 세계대표자대회 개막식을 가졌다.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와 강원도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동포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 ‘월드옥타의 성장과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토론회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에 관한 정보를 교환했다.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한인 무역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해 모국과 동반성장을 이뤄간다면 그야말로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김경근 동포재단 이사장은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한인무역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오스트리아 한인사랑방 ‘한인문화회관’ 개관



오스트리아 한인사회의 숙원이었던 ‘한인문화회관’이 5월 3일 개관했다. 개관식에는 하인츠 피셔 오스트리아 현직 대통령 내외와 빈 시장, 박종범 유럽한인회총연합회장, 조현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오스트리아 한인문화회관이 5월 3일 하인츠 피셔(Heinz Fischer) 오스트리아 대통령, 조현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요 인사들과 유럽 각국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수도 비엔나 시내 도나우 공원 내의 호숫가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은 지난 1968년 지어진 1천335㎡(약 403평) 부지에 연면적 925㎡(약 280평)의 2층 비엔나 시 정부 소유 건물을 개조해 한글학교 등 한인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며, 시 정부가 50년간 건물을 무상 임대해주고 많은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기금 모금에 동참하는 한편, 재외동포재단에서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건립됐다.

한인문화회관은 오스트리아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이었으며, 한·오 수교 120주년인 올해 개관을 목표로 재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회장 박종범)와 한인문화회관 설립위원회(위원장 전미자)를 주축으로 한 동포들이 전력을 기울여 이루어냈다.

이날 개관식에서 피셔 대통령은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오스트리아 내 한인사회가 보여준 의지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한인문화회관 개관을 계기로 한·오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인문화회관에는 한글학교, 어학원, 노인대학, 유치원 등 한인 교육을 위한 공간은 물론 한국문화 체험관, 홍보관 등이 마련돼 오스트리아에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인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

자서전을 읽다

임의숙 제13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미국)

외 줄 하나에 몸을 감은 저 사내
알파벳의 간판 아래 현기증이 아찔하다

잘못 꾸어진 꿈들이 대서특필된
사건의 진상이 뺄곡히 채워진 유리창
“생명보험”이라는 제목을 달고 구름의 스케치와 먼지들의 걸진
광고가 인쇄된 기사는 옆 건물로 반사되어 복사되었다
빌딩과 빌딩 협곡 사이로 흐르는 사건의 전말은
12번가의 불개미와 전갈의 오래 묵은 눈싸움이 총성을 쏘았고
47번가의 알코올 중독 노숙 쥐가 옛 앵커맨이었다는
바람이 단독 취재한 간밤의 특종이다
평화의 새 비둘기가 배설물로 인증을 찍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는데...
지우개의 부스럼처럼 사건의 줄거리가 흘러내린다

허공에 의자 하나 걸쳐 앉은
사내는 자서전을 집필 중이다

독경을 외듯 잔잔한 리듬으로 옮겨가는 그의 몸짓 하나하나에
들숨과 날숨이 숨을 죽이고 롤리코스트를 타듯 이야기가 굴곡을 그릴 때마다
우리는 애 닳는 독자가 된다
짙그린 이마에 손을 짚고 읽어 내려가는 호기심으로 시작한
첫 장에서부터 발이 땅에 닿는 마지막 장까지
서커스의 곡예사와 번지점프의 희열이 타 들어가는
사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였다.

스파이더맨의 영상을 재편집하는 어느 미국 아이가 서 있다

바람이 뒤척일 때마다 우리의 자서전이 위태롭다. **창**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익명 / 은닉

우리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발음 규칙 가운데서 ‘ㄴ’ 소리를 잘못 첨가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다.

스포츠 소식을 전해 주는 프로그램을 잘 들어 보면, 해설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00팀이 3년패를 했습니다’

‘00팀이 3년승을 했습니다’

이 예문은 경기에서 삼 년 동안 우승했다는 것과 세 번 계속해서 이겼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3년패’나 ‘3년승’이 아니라 ‘3연패’와 ‘3연승’이 맞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숫자 뒤에 오는 ‘연(連)’이라는 말은 ‘계속하다’란 뜻을 나타내는 한자다. 숫자와 이어서 말할 때 ‘ㄴ’을 첨가해서 발음하지 않고 그냥 연음시켜서(사면패, 사면승)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호명

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때는 훈훈한 인정과 함께 신선함을 느끼게 된다.

간혹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신분이나 이름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하는 선행이야말로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이처럼 이름을 숨기고 어떤 일을 할 때 ‘익명(匿名)으로 한다’고 한다.

이 경우에 첫음절에 오는 글자는 한자의 ‘숨을 닉(匿)’자를 쓰는 데, 단어 첫 머리에서는 ‘익’으로 쓰기 때문에 ‘익명’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한자를 사용하지만 뜻은 전혀 다르게 쓰이면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있다.

흔히 범죄인이나 장물을 숨기는 것을 가리켜서 ‘은닉’ 또는 ‘은닉’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바름 발음일까?

이 경우에는 ‘은닉’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글자로 표기할 때는 ‘은닉(隱匿)’이라고 하는데, 둘째 음절의 ‘닉’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익명’의 첫머리 글자와 같은 한자를 쓴다. 그러나 이 글자가 둘째 음절에 오기 때문에 원래 글자 그대로 ‘닉’이라고 쓰는 것이다.

잘못된 ‘ㄴ’ 첨가

어떤 식을 하는 자리에서 시상을 한다든지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자가 많을 때는 이름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사회자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 보면 ‘이름을 호명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표현을 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서 ‘이름을 호명하시면’이라고 말한 것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다. 우선 ‘호명(呼名)’이라는 말은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을 호명한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 중복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호명하시면’이라는 말은 존대법이 잘못 사용된 것이다.

‘호명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사회자 자신이기 때문에 ‘호명하시면’이라는 말은 사회자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이름을 호명하다, 대신 ‘이름을 부르다’라든가 ‘호명하다’고 할 수 있겠고, 듣는 사람을 높여서 말하고자 한다면 ‘호명받으시면’ 또는 ‘호명되시면’과 같이 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장**

바다를 향한 우리 민족의 빛...

여수세계박람회 5월12일 팡파르 '93일간의 판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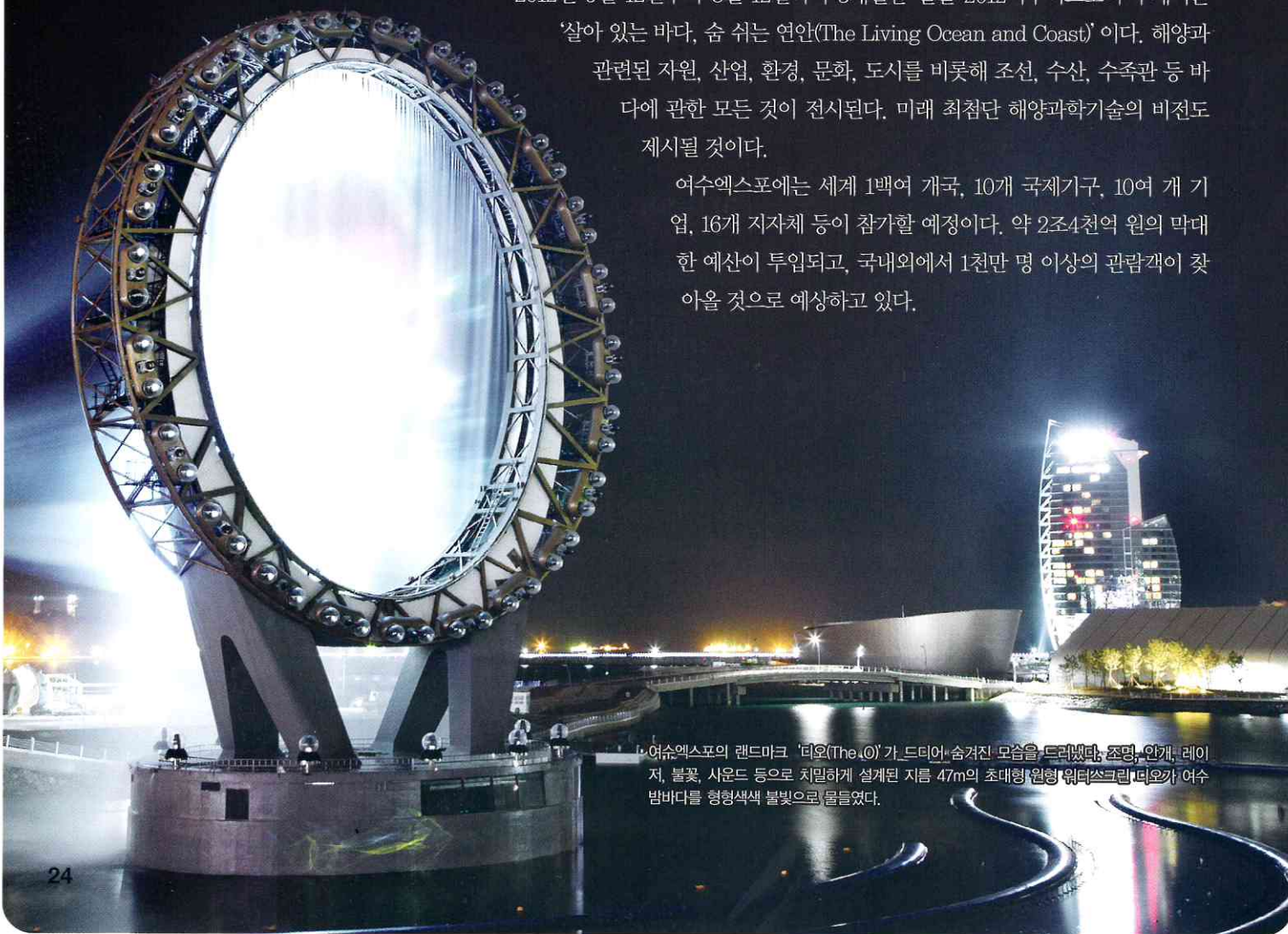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5월 12일 개막을 앞두고 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이벤트로 불리는 초대형 국제행사다. 이번 박람회에는 1백여 개국, 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할 예정이다.

전시장 건설 등 개막 준비는 마무리 단계다. 전시물도 속속 자리를 채우고 있다. 바다에서 인류의 미래를 모색하는 해양엑스포, 총 1만2천 회의 공연이 어우러지는 문화엑스포, 관람객과 소통하는 참여형 엑스포인 여수엑스포, 우리나라가 미래 해양산업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디딤돌이 놓이고 있다.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열릴 2012여수엑스포의 주제는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이다. 해양과 관련된 자원, 산업, 환경, 문화, 도시를 비롯해 조선, 수산, 수족관 등 바다에 관한 모든 것이 전시된다. 미래 최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비전도 제시될 것이다.

여수엑스포에는 세계 1백여 개국, 10개 국제기구, 10여 개 기업, 16개 지자체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약 2조4천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내외에서 1천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수엑스포의 랜드마크 '미오(The.0)'가 드디어 숨겨진 모습을 드러냈다. 조명, 안개, 레이저, 불꽃, 시운드 등으로 치밀하게 설계된 지름 47m의 초대형 원형 워터스크린 미오가 여수 밤바다를 형형색색 불빛으로 물들였다.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이벤트 중 하나인데, 그중에서도 엑스포는 경제적·문화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다.

해양문명도시관, 해양기업관, 빅오(Big-O), 해양로봇관, 아쿠아리움,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 국제관, 스카이라워 등 볼거리가 풍부하지만 지향점은 하나다. 여수엑스포의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고, 해양자원 고갈과 기후변화 같은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 지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런 인류 차원의 거창한 의의 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적 의의도 크다. 국가적으로는 해양에너지 활용기술, 차세대 해양 바이오기술, 해양오염제어·환경기술 등 창조적 해양과학기술 개발과 해양레포츠, 해양관광업 등 신해양산업 진흥과 육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생산 약 12조원, 부가가치 5조7천억 원, 고용 7만9천 명 등의 국가 경제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적으로는 여수시의 지역재생 및 지역개발 효과가 극대화되고, 여수 및 남해안이 세계 수준의 해양문화 관광 레저벨트로 개발되는 등 부수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엑스포를 위한 고속철도(KTX)가 개통되어 서울~여수를 3시간30분 만에 갈 수 있고, 엑스포 행사장 주변의 도로망도 크게 확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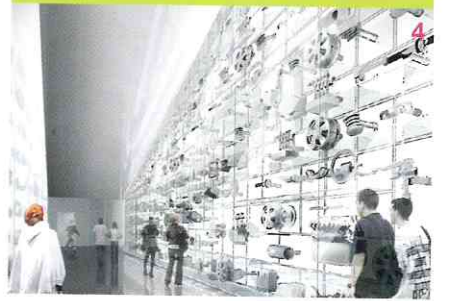
'한국의 나폴리' 여수 10경

미국의 CNN은 올해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여행지(Top places to visit in 2012) 가운데 여수엑스포를 1위로 뽑았다. 올림픽 개최지인 런던이나 유로 2012가 열리는 폴란드는 그 다음 순위다.

여행 안내서 '로리 플래닛'은 '2012년 꼭 해야 할 10가지' 가운데 하나로 여수 여행을 선정했다. 엑스포 개막에 발맞춰 연계 관광 상품도 속속 나오고 있다.

'한국의 나폴리' 여수는 진남관, 오동도, 향일암, 돌산대교, 거문도등대, 백도, 사도, 영취산,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자만 갯벌 등 10경을 자랑한다. 엑스포를 관람하고 배를 타고 나서면 거문도, 백도, 사도 등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으로 갈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남도음식은 맛 좋고 푸짐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여수는 그 남도음식의 중심이다. 신선한 해산물을 주재료로써 '바다가 고스란히 식탁으로 올라온 듯한' 여수의 향토음식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창**



- 1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자원봉사자 580여 명, 전시관 도우미 400여 명이 모의 관람객을 맞는 등 준비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했다.
- 2 하늘에 떠있는 디지털 바다, 여수세계박람회 4대 특화시설중 하나인 엑스포 디지털갤러리(EDG)가 최근 그 모습을 드러냈다. EDG는 엑스포 정문과 제3문(KTX 입구쪽)을 연결하는 길이 415m, 폭21m 가로 구간이다.
- 3 여수엑스포 도우미들이 유니폼을 입고 관람객 맞이 여행연습에 한창이다. 총 693명의 여수엑스포 도우미들은 엑스포가 열리는 93일 동안 통역·의전·전시안내 등 다양한 분야, 40여개 장소에서 관람객을 돕게 된다.
- 4 현대차그룹은 여수엑스포가 열리는 5월 12일부터 3개월간 엑스포 부지 내에서 운영하는 현대차그룹관의 세부 전시 내역과 의미를 최근 공개했다.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의 비영리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15주년을 맞은 재단은 우수한 해외인재의 역량결집을 위해 매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The 15th Future Leader's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인사회 권익신장과 발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사회·경

제 및 산업 분야 차세대 인재들을 모국에 초청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동 포럼에는 상기 분야에서 약 100여명의 우수한 인재가 참여하여 활발한 정보교환과 교류의 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를 꿈꾸는 차세대 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 연설, 분야별 포럼 및 주제 강연, 정부기관 방문 및 관련 인사 예방, 국내외 동포 간 네트워킹이 있다. 참가자는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10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가운데 재외동포 교류 촉진 및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참가 신청 마감은 5월 18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6월 1일에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korean.net)를 참고하면 된다.

독자후기 _ 스테판 정 온두라스 육사 교수

지난 4월20일 한국 대사관을 찾아 갔다가 재외동포의 창 3월호를 받아 읽었다. 소식지를 펼쳐 보니 차례마다 수록된 내용들이 진한 감동을 주는 것들이 많았다.

차세대 한국 역사 교육, 재외동포 장학 사업, 한국학교 소개, 멕시코 한인 후손 초청 연수교육, 센다이 지진피해를 도운 센다이 총 영사관에 외국인 상을 준 것 등 모두가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어서 자랑스럽다.

한편으로 재외동포 창은 전시효과가 강조되어 활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업적이나 능력을 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맘 같아서는 재외동포 창이 세계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

라-한인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뉴스 리포터처럼 세계 각 국 지역마다 리포터를 심어 창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사할린 한인의 망향가를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다.

‘내가 사는 나라 살아갈 나라’를 쓴 서기윤 학생의 글만 보아도 그들은 돌아갈 수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다리 역할을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창이 나서 해 주어야 한다.

재외동포 창을 복간하여 주신 담당자나 편집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독자 후기를 받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국내외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면을 꾸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읽으신 후 내용 등에 대한 감상 및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독 요청이나 주소 변경 요청 등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3분을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pr@okt.or.kr(매월 20일까지)

세계인의 꿈꾸는 바다 이야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와 인류의 아름다운 공존을 노래하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로운 상생을 기원하는
지구촌 바다축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펼쳐집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해양박람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주제 |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기간 | 2012년 5월 12일 - 8월 12일(93일간)
장소 | 전라남도 여수 신항 일대
규모 | 참가국 100여 개국

(입장권 안내)

- 보통권 | 성인 33,000원, 청소년 25,000원, 경로 어린이 19,000원
- 평일 단체권 | 성인 27,000원, 청소년 17,000원, 경로 어린이 13,000원
- 자세한 안내는 하단의 입장권 구매처 참조

(입장권 구매처)

- 2012여수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 www.expo2012.kr
- 인터파크 홈페이지 | www.interpark.com
- 전화예매 | 1577-1763(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부) / 1544-1555(인터파크)

Official Global Partners



Official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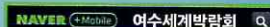
Official Spons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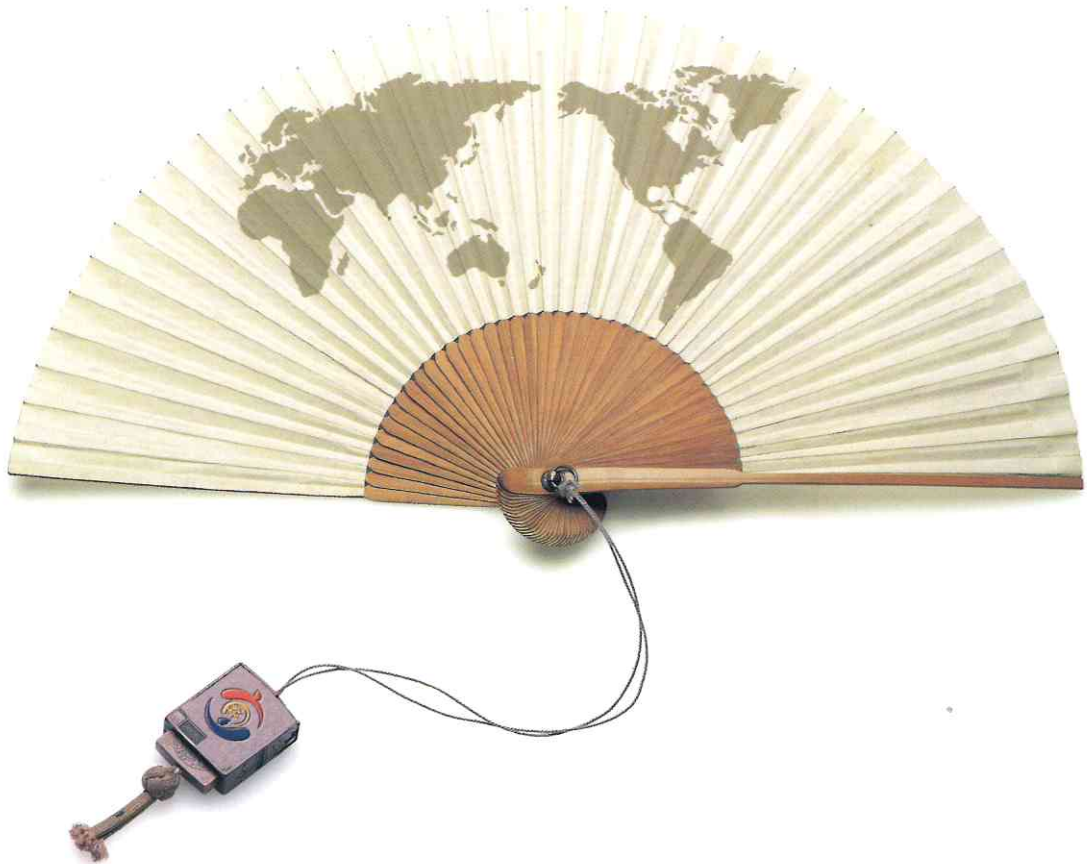


Official Suppliers



Official On-line shopping Mall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날로 늘어나는 재외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있습니다.